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6월 22일

케이스탯 2023년 6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소폭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2%, 5%p 상승
- _ 정부 신뢰도 : '신뢰' 23%, 6%p 상승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9%, 5%p 상승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7%, 소폭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0%, 횡보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4%, 4%p 상승
-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24%, 11%p 하락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7%, '고통' 23%, '번창' 11%

■ 6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 의식

- _ 개인 행복도 : 어제, '행복했다' 49%, '걱정 많았다' 51%
- _ 상대적 행복도 : '주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67%
- _ 5년 후 개인 삶 전망 : 비슷 47% > 긍정 42% > 부정 12%
- _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긍정(28%)' 횡보, '부정(29%)' 상승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6월 9일(금) ~ 6월 11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3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5\%$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6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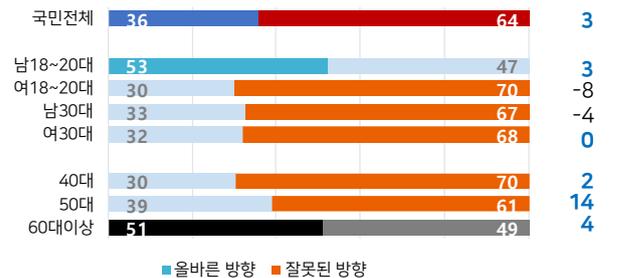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소폭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2개월 연속 상승함
 - 2023년 6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9% vs '잘못된 방향' 61%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남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화이트칼라, 은퇴·무직자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보수층뿐이었으며, △TK, PK △자영업자, 블루칼라, 학생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음
 - △60대 이상은 긍·부정 평가가 각각 51%, 49%로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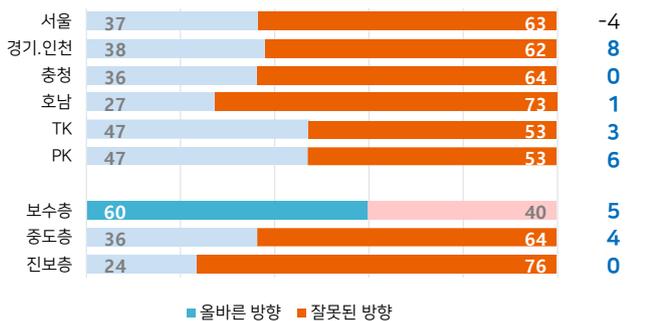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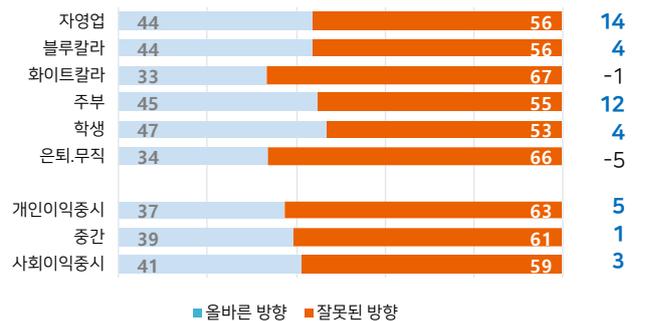
2023년 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6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6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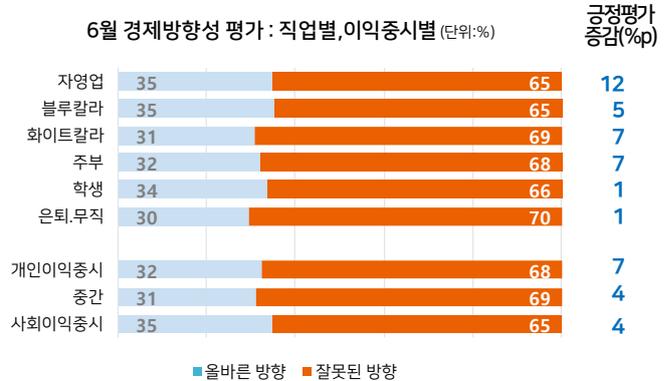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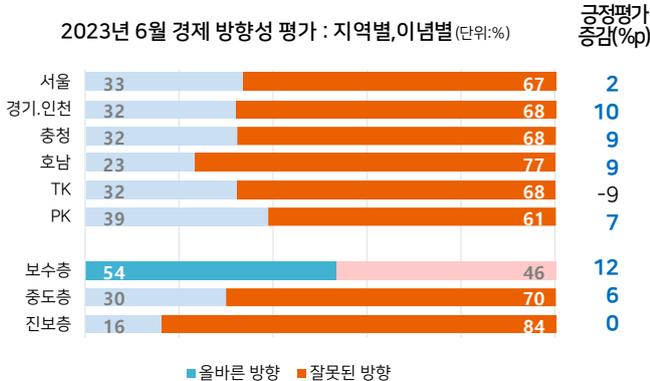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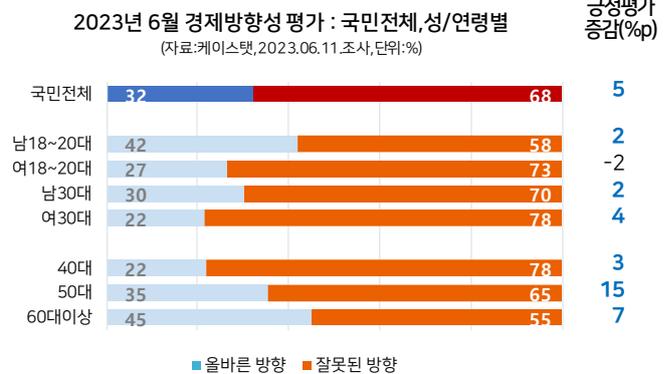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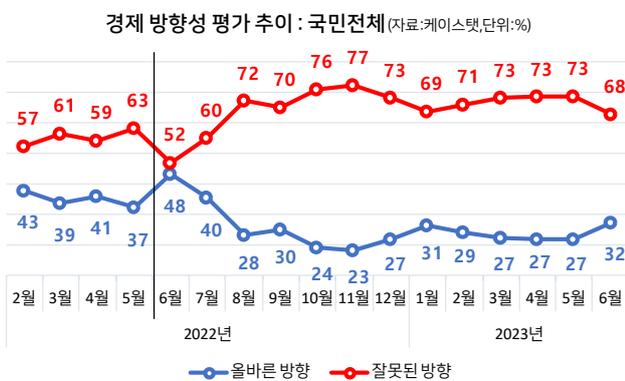


Kstat Point

- ☑ 올 상반기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30% 중후반 수준에 안착한 양상임
 - : 지난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방향성이 올바르게'라는 응답률이 최소 34%, 최고 39%에서 등락함
- ☑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와 연관성을 가지는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도 지난 약 1개월 동안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주간은 홍보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 달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됨
 - :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추이 : 5월 2주·3주·4주 각 35%, 37%, 36%, 6월 1주·3주 각 35%
 - : 6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이유로 '노조 대응', '공정·정의·원칙', '부정 부패·비리 척결' 등이 거론됐으며,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이 언급됨

□ 경제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2%, 5%p 상승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 응답이 큰 폭 상승하며, 30% 초반 선으로 올라섬
 - 2023년 6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2% vs '잘못된 방향' 68%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40대 △호남 △진보층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남자 18~20대 △60대 이상 △PK 등에서도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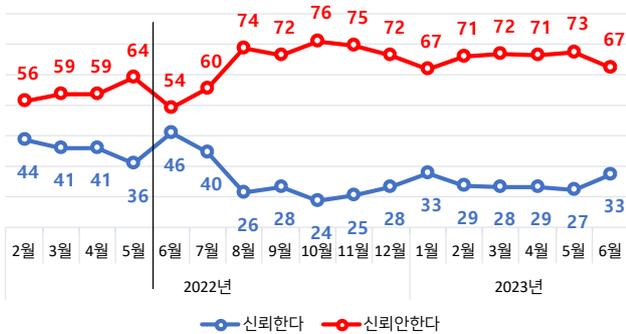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 후반~70%대에서 견고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는 작년 말 대비 부정 여론이 다소 하락한 모습임
- ☑ 정부 안팎에서도 최근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관측된다며,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보임
 - : 기획재정부는 '6월 그린북'에서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힘
 -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월 경제동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부진하지만, 경기 저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 분석함
- ☑ 경기 전환 판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수출 회복, 경제심리 개선 등의 흐름이 하반기에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됨
 - : 최근 대중국 수출 감소액이 3월 33.1%→4월 26.5%→5월 20.8%→6월 1~10일 10.9%로 축소함
 - :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개월 연속 상승해 98.0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5월(102.9) 이후 1년 만에 보인 최고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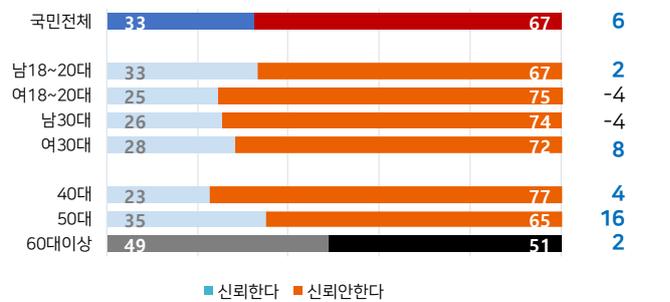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33%, 6%p 상승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큰 폭(+6%p) 증가하며, 지난 1월 이후 보인 점진적인 하락세가 꺾임
 - 6월 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 33% vs '신뢰하지 않는다' 67%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남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은퇴·무직자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더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TK, PK △자영업자 △사회이익중시층 등에서도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60대 이상은 긍·부정 응답이 각각 49%, 51%로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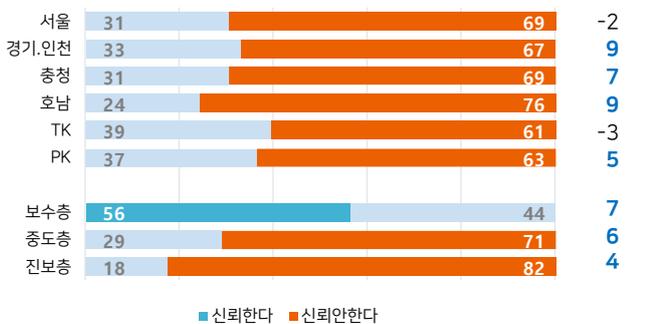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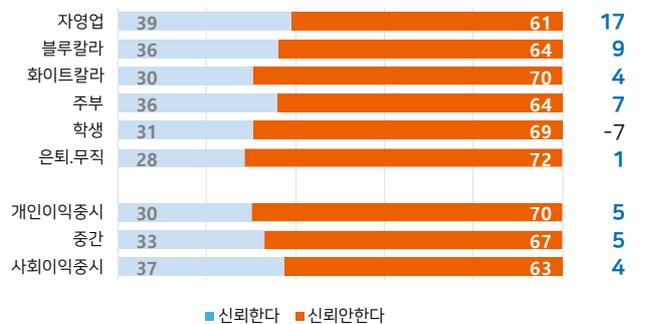
2023년 6월 정부신뢰도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2023년 6월 정부신뢰도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6월 정부신뢰도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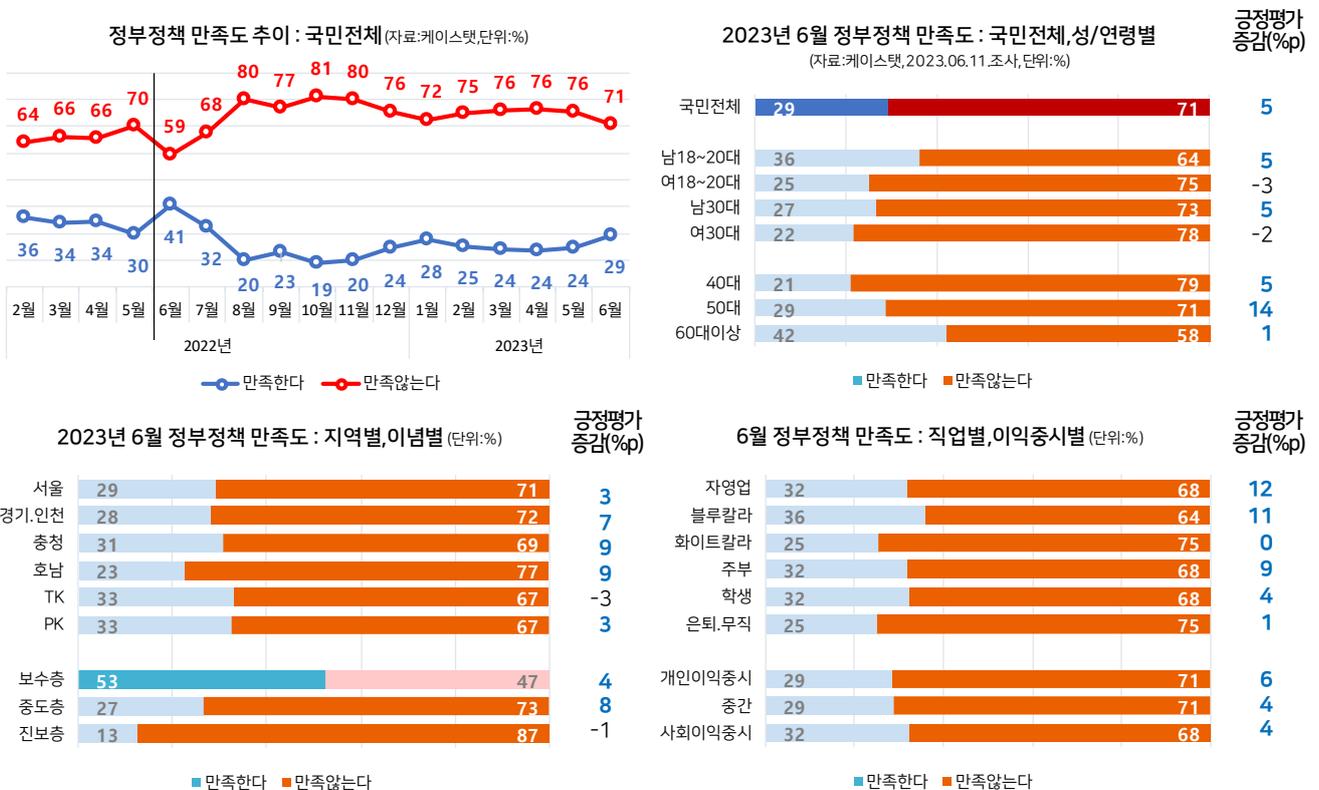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1월 이후 점진적인 감소세를 보인 정부 신뢰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 이는 여자 20대, 남자 30대, 학생 등을 제외한 계층 전반이 신뢰도 상승을 견인함
- ☑ 이번 달 '경제 방향성'과 '정부 정책 만족도'에서도 긍정평가가 크게 올랐는데, 올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끈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앞서 '경제 방향성'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조만간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을 내비쳤음
 - : 한국갤럽 기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통령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 1순위 이유가 모두 '외교'였던 가운데, 5월 1주에 처음으로 '외교'가 긍정평가(35%) 이유로서 부정평가(32%) 이유를 앞선 후 6월 1주까지 줄곧 유지했으며, 긍정 응답은 40%까지 올랐고, 부정 응답은 29%로 소폭 하락함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9%, 5%p 상승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최근 11개월 연속 20%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큰 폭 증가하며 29%를 기록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만족한다' 응답 우세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남자 18~20대 △60대 이상 △블루칼라 등에서도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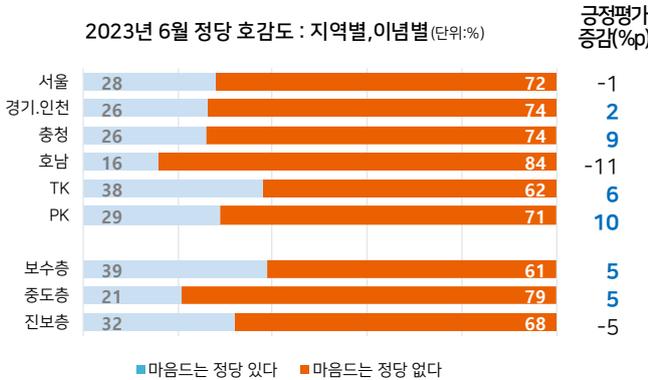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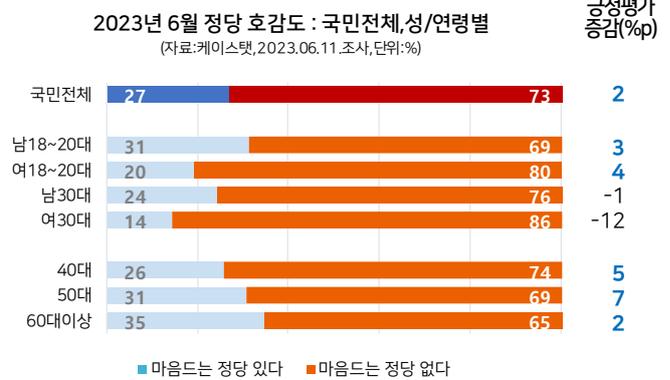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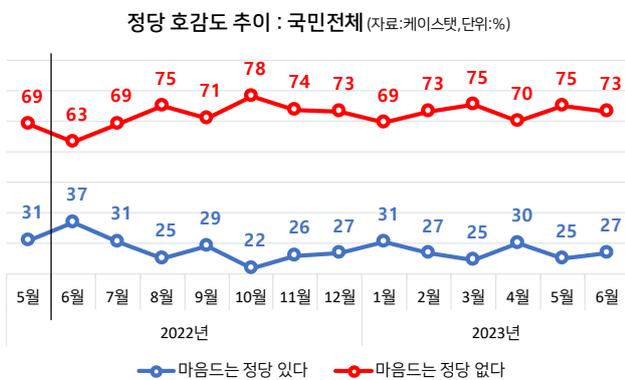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3~4분기 동안 20% 초반 선을 기록하던 정책 만족도가 올해 20% 중반 내지는 후반대로 다소 회복한 양상임
- ☑ 이에는 다른 정책보다 외교·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긍정여론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주요 정책 분야별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외교·대북정책 각각은 긍정평가가 증가했고, 복지·경제정책 각각은 긍정평가가 줄었으며, 부동산 정책은 횡보함
 - ('22년 9월 2주, '23년 4월 2주, 6월 2주의 분야별 정책 긍정평가 추이) '외교' 37%→35%→41%, '대북' 39%→40%→41%, '부동산' 37%→38%→37%, '복지' 38%→37%→36%, '경제' 30%→31%→28%
 - 정부는 올 1월 UAE순방을 시작으로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미국 국민방문, 5월 G7정상회의 참석, 한일 셔틀외교 재개 등 굵직한 외교 행보를 소화하며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주력했음
- ☑ 다만, 여전히 정책 만족도가 30%를 하회하고 있는바, 정책 만족도 개선을 위해 국민이 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둔 정책적 행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7%, 소폭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하며, 27%를 기록함
 - 6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7%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3%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호남 △중도층 △자영업자 등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서울, TK △보수층, 진보층 △블루칼라 △사회이익 증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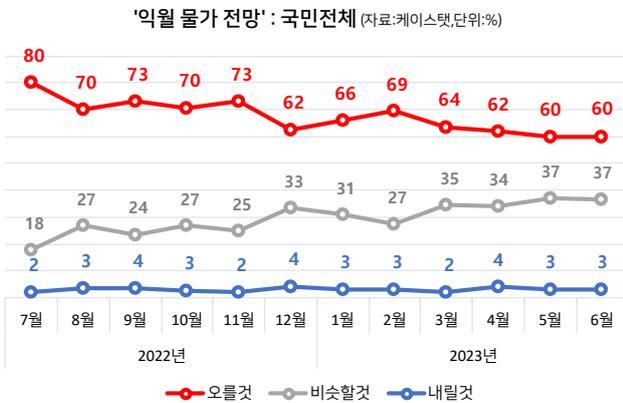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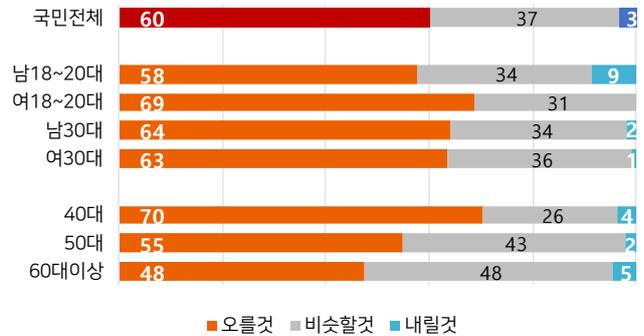
-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당 주요 지지층의 여론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는 증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월 대비 이달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 응답이 더민주당 지지층인 호남(-11%p)과 진보층(-5%p)은 큰 폭 하락, 국민의힘 지지층인 TK(+6%p), 보수층(+5%p)은 큰 폭 상승함
 - : 절대적으로도 TK(38%)의 정당 호감도는 호남(16%)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보수층(39%)의 정당 호감도도 진보층(32%)보다 오차 범위 밖(+7%p)에서 우위에 있었음
- ☑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이어 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논란 등 혼란이 가중되어 있고, 김은경 새 혁신위원회 체제에서의 당 혁신 방향 및 과제를 두고 계파 간 격론이 오가는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더민주당의 호감도가 상승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국민의힘은 야당 상황과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가운데,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의원 정족수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정치 혁신 비전 및 총선 구상을 밝힌 김기현 대표가 이후 당 호감도, 지지도 상승을 끌어낼지 주목됨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0%, 횡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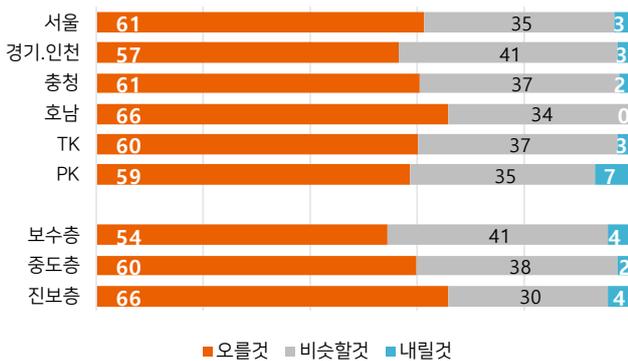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내릴 것',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 모두 전월과 동률로 횡보함
 - 6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60%, '지금과 비슷할 것' 37%, '지금보다 떨어질 것' 3%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충청, 호남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5060세대 △경기.인천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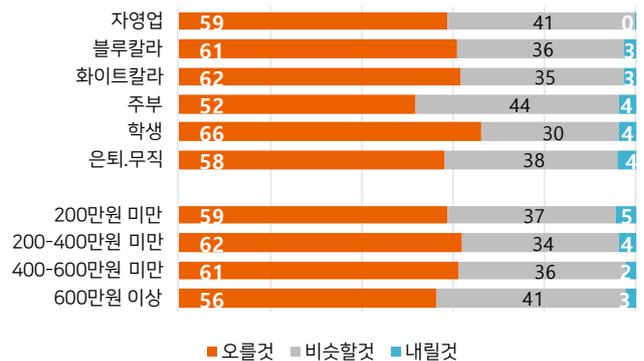
2023년 6월 '익월 물가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2023년 6월 '익월 물가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2023년 6월 '익월 물가 전망' : 직업별,소득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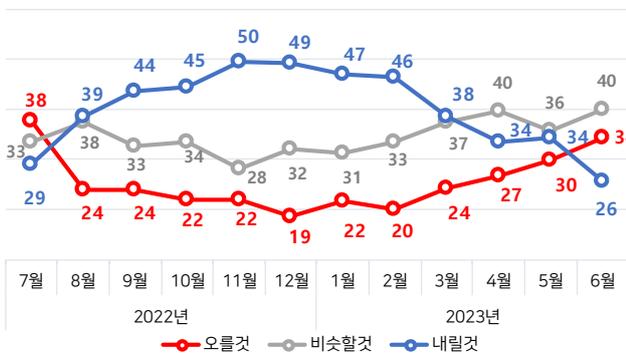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물가 전망과 관련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향세를 보인 가운데, 이달에는 '오를 것', '내릴 것', '비슷할 것' 모두 전월과 동일한 응답률을 기록함
- ☑ 소비자물가는 다소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지만, 외식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실 속 국민들은 다음 달 물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거나, 현 물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5%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 5월 3.3%까지 내려옴
 - : 5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했으며, 2020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중반(6~7월) 물가가 2%대로 내렸다가 연말에 다시 3%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다음 달 국민들은 익월 물가를 어떻게 전망할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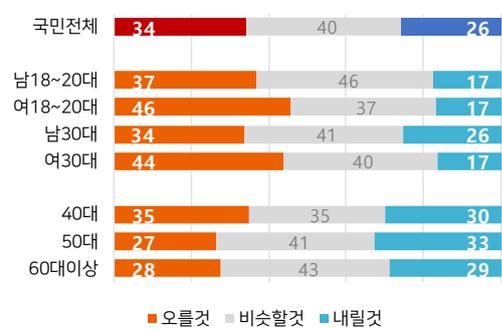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34%, 4%p 상승

- 부동산 가격 전망 관련,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이 최근 4개월 연속 오르며, '내릴 것' 응답을 앞섰음
- 6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0%, '지금보다 오를 것' 34%, '지금보다 내릴 것' 26%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했으며, 특히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PK △중도층 △학생,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응답이 두드러짐
- 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전망한 계층은 △50대, 60대 이상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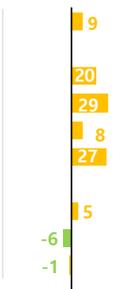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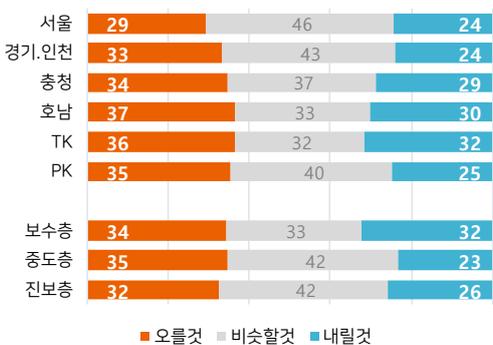
2023년 6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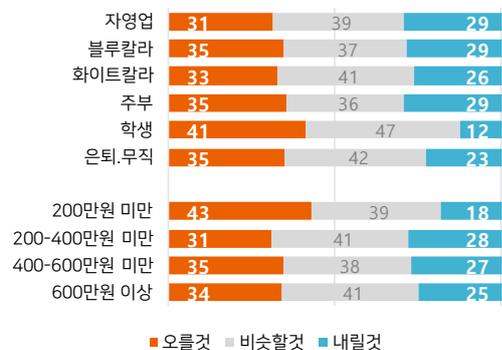
6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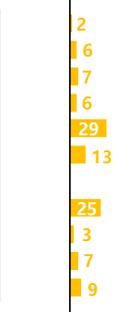
상승-하락 (%p)



6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직업별,소득별 (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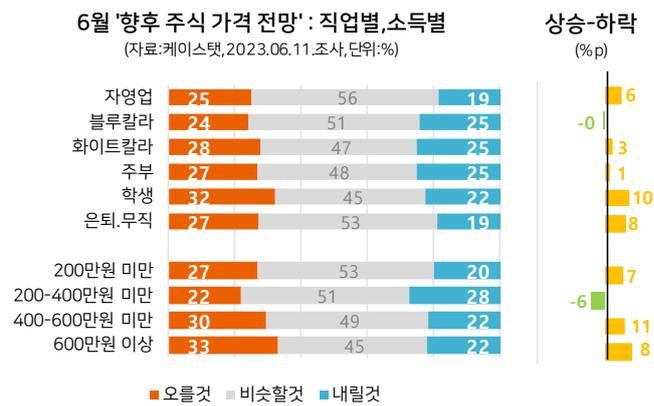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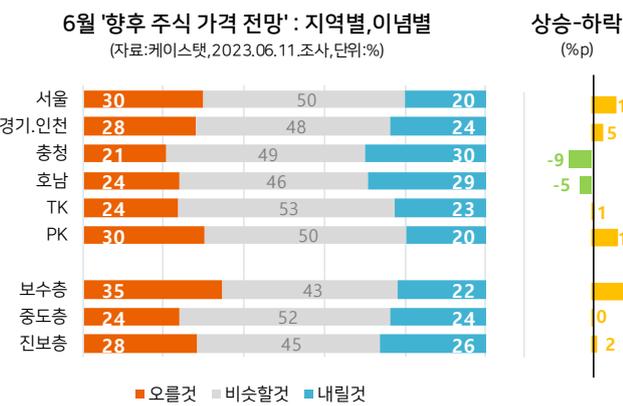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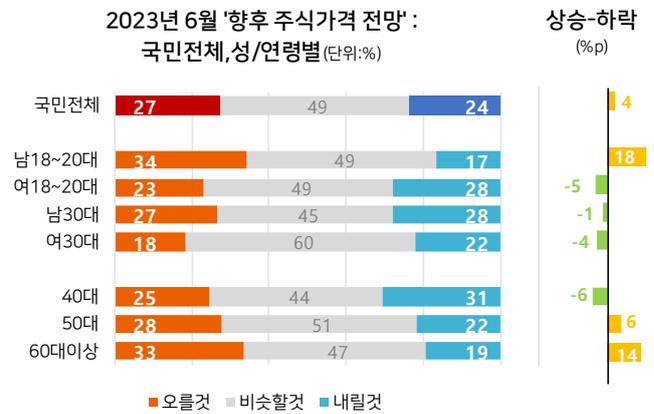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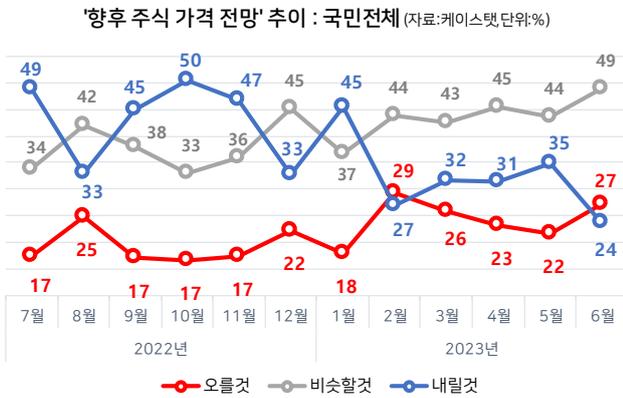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11월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1년 중 최저치를 기록함
- ☑ 실제로 최근 5개월 연속 전국 집값의 하락 폭이 둔화하고 있고, 부동산 매매심리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임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올해 5개월 연속 하락 폭이 축소됨
12월 -1.98% → 1월 -1.49% → 2월 -1.15% → 3월 -0.78% → 4월 -0.47% → 5월 -0.22%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도 지난 1월 이후 5달 연속 반등세를 보임
1월 91.5 → 2월 102.1 → 3월 103.6 → 4월 107.7 → 5월 112.0
- ☑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바닥론'과 '신중론'이 함께 관측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상승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무리임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24%, 11%p 하락

-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과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큰 폭 상승하고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대폭 하락함
 - 6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9%, '지금보다 오를 것' 27%, '지금보다 내릴 것' 24%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계층별로 응답이 엇갈렸으며 주가 상승 전망은 특히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서울, PK △보수층 △학생,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층 등에서 높았음
-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40대 △충청, 호남 △월평균 가구소득 200~400만원 미만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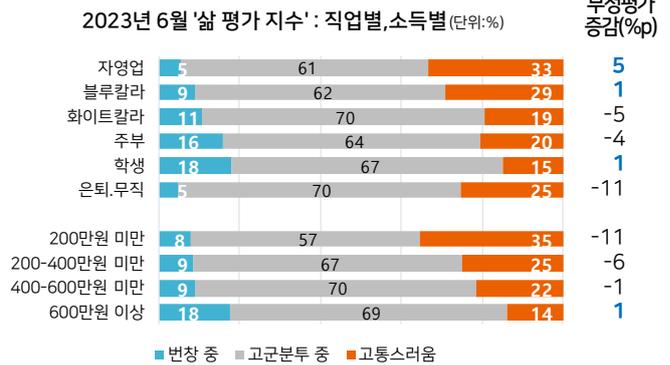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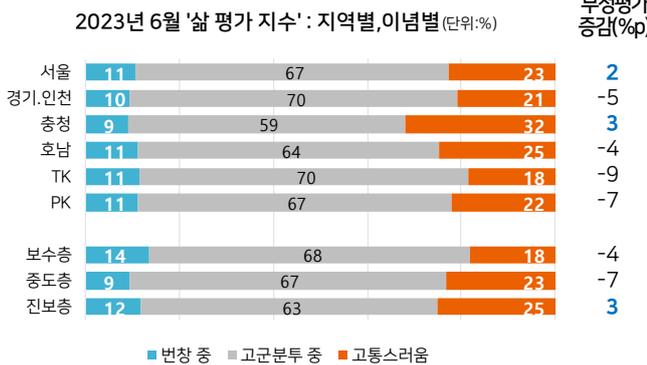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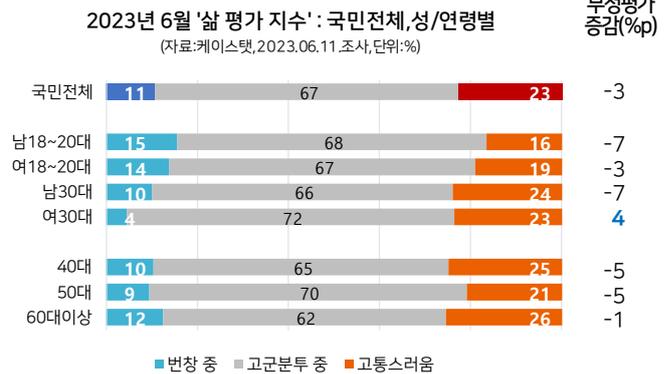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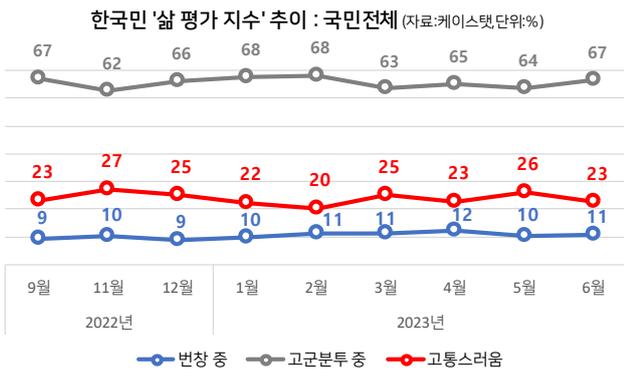


Kstat Point

☑️ 주식 가격 하락 전망세가 급격하며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된 상승세가 꺾였는데, 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 선에 안착하면서 하반기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는 지점으로 보임 : 최근 증권사들은 올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올렸으며, 일부는 3000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봄 : 삼성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기존 2200~2600선에서 2350~2750선으로 상향, KB증권은 기존 코스피 상단 2800을 2920으로 높였고, DB금융투자는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함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7%, '고통' 23%, '번창' 11%

-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응답과 '번창 중' 응답은 소폭 증가하고, '고통스럽다' 응답은 소폭 감소함
 - 6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7%, '고통스럽다' 23%, '번창하고 있다' 11% 순으로 나타남
 -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충청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뿐인 가운데, △남자 18~20대 △주부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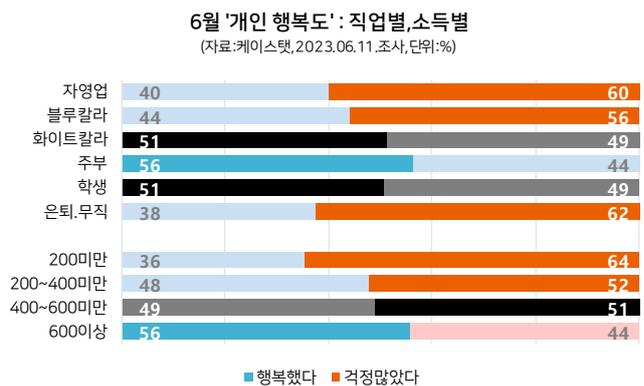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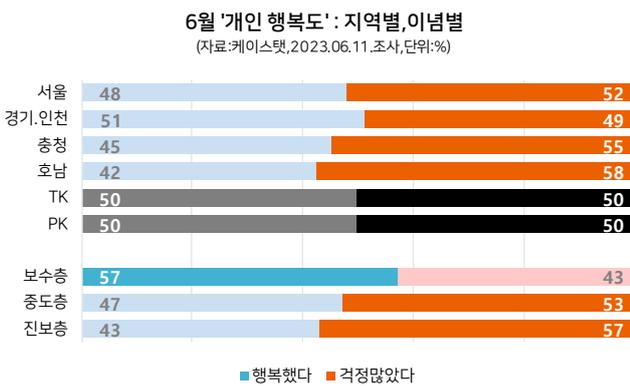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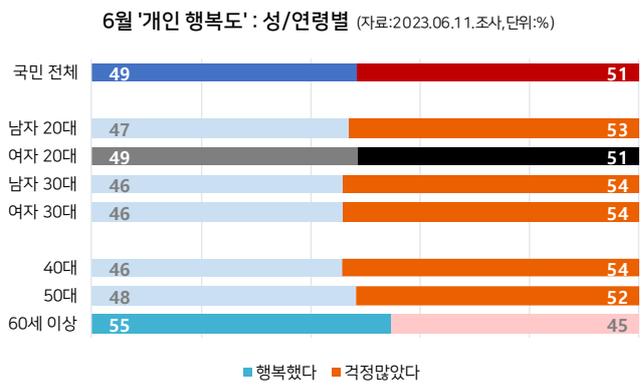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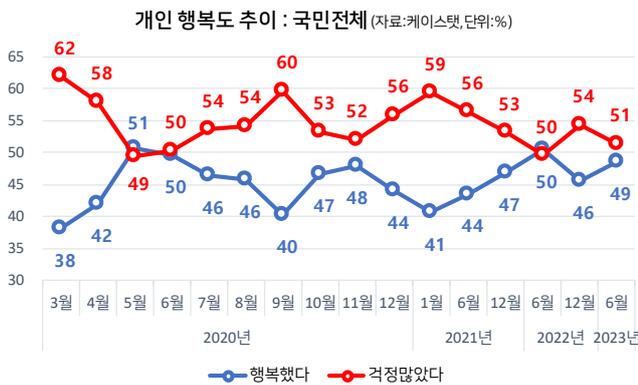
Kstat Point

- ☑ 현재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하고, '고통스럽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하며,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개선됨
 - : 특히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삶이 고통스럽다'는 응답이 대폭 하락함
 - : 이는 최근 소비자들의 경제인식 및 심리가 개선된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임
 - : 지난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년 만에 최고치(98.0)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88), 생활형편전망(92), 취업기회전망(78), 현재경기판단(64), 향후경기전망(74) 등 개별지수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음

6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 의식

□ 개인 행복도 : 어제, '행복했다' 49%, '걱정 많았다' 51%

- 국민 절반 정도는 어제 하루 '걱정 많았다'(51%)라고 응답했고, 또 다른 절반은 어제 하루 '행복했다'(49%)라고 응답함
- '행복했다'는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60세 이상 △보수층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등이었음
- '걱정 많았다'는 응답이 특히 더 높은 계층은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으로 나타남
 - △여자 18~20대 △TK, PK △화이트칼라,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층 등은 두 응답이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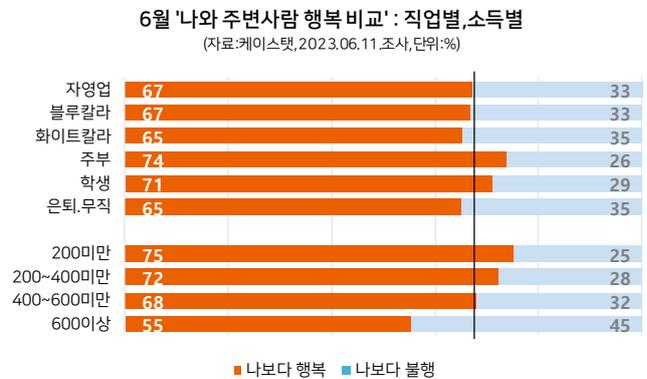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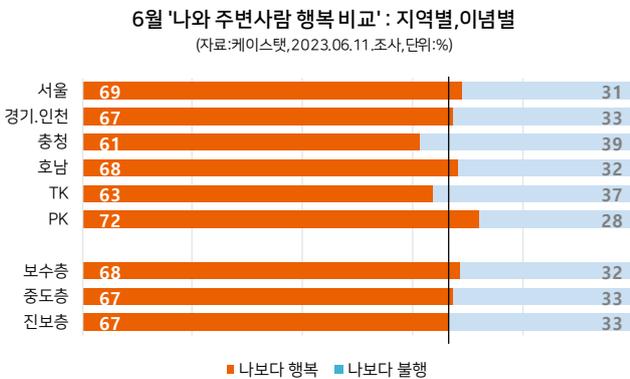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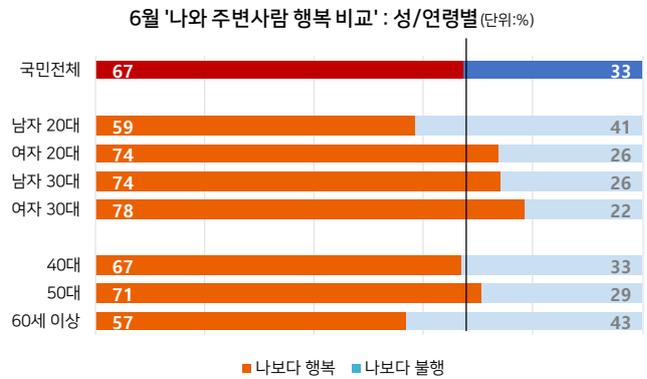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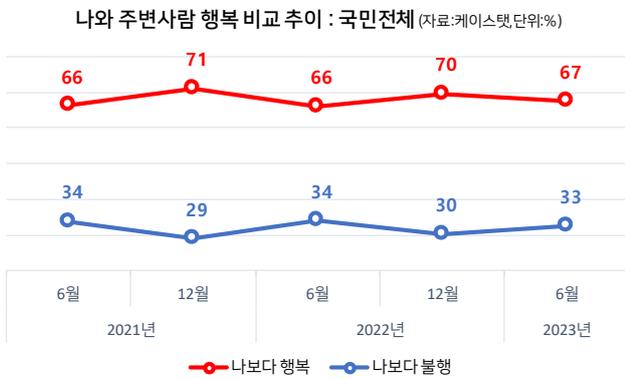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12월과 비교해 올해 국민 개인의 행복도는 다소 높아진 모습임
- ☑ 경제성장은 국가 경제력과 국민 소비 및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인 행복도 개선 배경에는 올 하반기에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2022년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가 지속되며 경제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새해(올해) 경제는 더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음
 - :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는 'KDI가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힘

□ 상대적 행복도 : '주변 사람, 나보다 행복해' 67%

- 국민 10명 중 6~7명은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67%)고 생각함
 - 6월 조사 결과,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 67%, '나보다 불행한 것 같다' 33%
- 모든 계층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 응답이 더 높았으며, 특히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 △PK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두드러짐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주변 사람이 나보다 불행한 것 같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대 △60세 이상 △층청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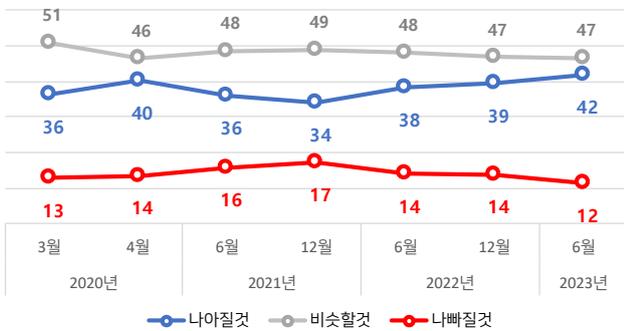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10명 중 6~7명은 '주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덜 행복하다'라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
 - : '21년 6월 이후 '주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는 응답이 60% 후반~70% 초반 선에서 고착되어 있음
- ☑ 이 같은 결과를 미루어볼 때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자기 자신보다 타인과의 비교 속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평가하며 상대적 행복감·불행감, 우울감·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임
 - : 상대적 행복감이나 불행감은 타인과의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감정으로, 이러한 감정은 상대적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이어지며, 혹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함
 - : 장 폴 사르트르가 인간은 타자의 시선·타자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대타존재(對他 존재·Being-for-Others)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기도 하며,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따라 자기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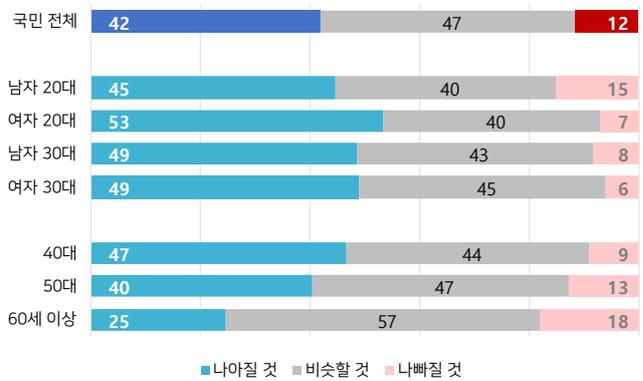
□ 5년 후 개인 삶 전망 : '비슷' 47% > '긍정' 42% > '부정' 12%

- 5년 후 개인 삶에 대한 국민 전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 47%, '지금보다 나아질 것' 42%, '지금보다 나빠질 것'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12월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이뤄짐
- 모든 계층이 긍정적으로 전망(나아질 것)나빠질 것)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 △40대 △보수층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이 긍정적이었음
- '부정 전망'은 특히 △60세 이상 △호남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높았음

5년 후 개인 삶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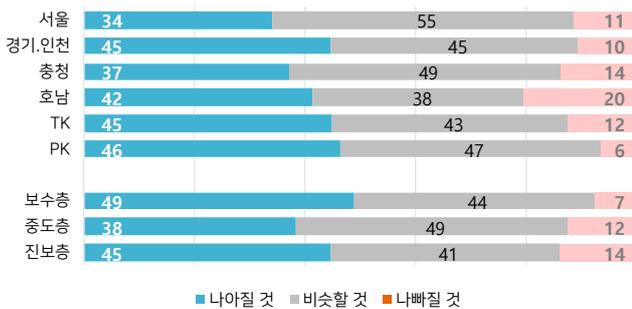


6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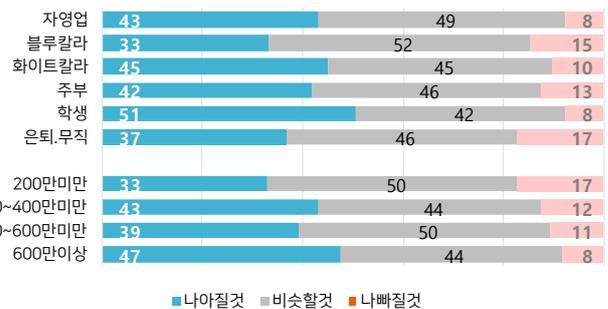
6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 조사,단위:%)



6월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 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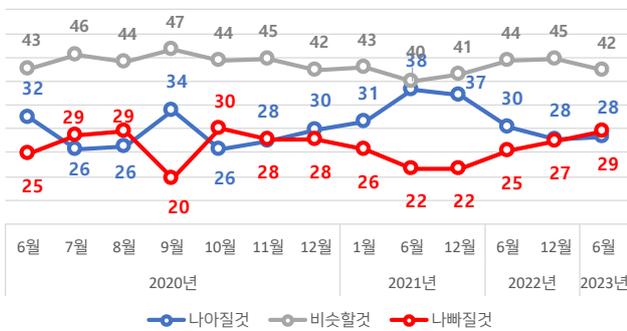
Kstat Point

- ☑ 5년 후의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국민여론이 '21년 12월 이후 지속 상승해 이번 달 40%를 상회했음 : 같은 기간 '개인 행복도'와 '상대적 행복도'는 상승 또는 하락세 등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는데, 현시점의 행복이나 불행이 국민 개개인의 5년 후 삶에 대한 전망을 좌우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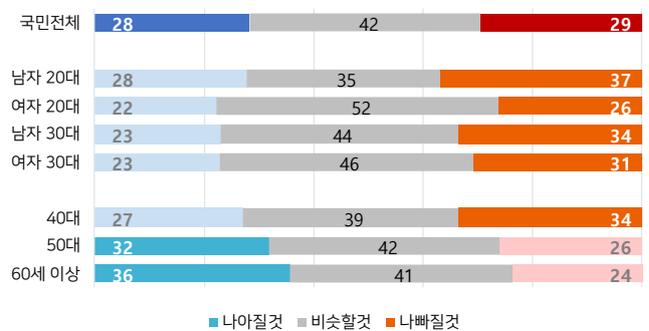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 : '긍정'(28%) 횡보, '부정'(29%) 상승

- 5년 후 대한민국 미래 전망에 대해 '지금과 비슷할 것'(42%) 응답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중하반기 이후 '나아질 것'(28%) 응답은 하락세를, '나빠질 것'(29%) 응답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계층별 긍·부정 전망('나아질 것'과 '나빠질 것' 응답률 비교)의 우세가 엇갈리는 가운데, '긍정 전망'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60세 이상 △보수층 △주부 등이었음
- '부정 전망' 응답의 경우, 특히 △남자 2030세대 △40대 △호남 △진보층 △학생 등에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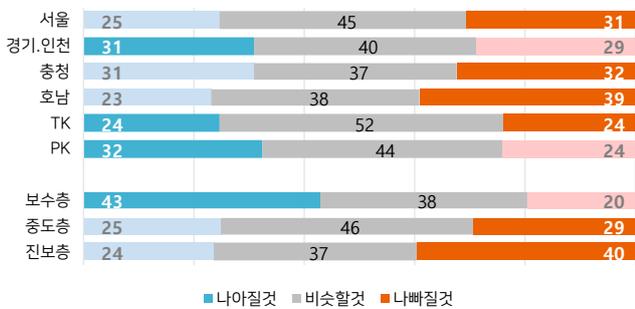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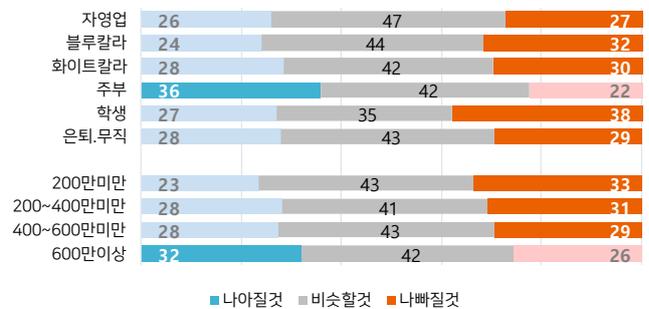
6월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성/연령별 (단위:%)



6월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6월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3.06.11.조사,단위:%)



Kstat Point

- ☑ 5년 후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21년 12월 이후 점차 상승했으며, 이달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앞섬 : 계층별로 긍·부정 응답을 비교해 살펴보면, 젊은층(2040세대), 진보 성향층(호남, 진보층), 저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서울, 블루칼라, 학생 등은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보다 더 높았음
- : 반면, 중장년층(50대 이상)과 보수 성향층(PK, 보수층, 주부 등), 고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은 긍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인 전망보다 더 높았음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7호는 『세계적 전쟁가능성 및 대북한 의식』이라는 주제로 2023년 6월 2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